

2024

11

소그룹교재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내가 양이라는 착각



새94장(통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새453장(통506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새455장(통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여는 질문

사람의 인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에 의해 무엇이든 내 의지와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입니까?

본문 이해

사람들은 언제나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지 조금 더 잘 지를 고민하는 순간부터, 잠옷을 벗고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출근해서 무슨 일부터 할 것인가, 점심 메뉴는 무엇인지, 정시에 퇴근할 것인지, 그리고 몇 시에 잠자리에 들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순간순간 모든 것이 선택과 결정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가장 큰 선택의 기로가 '짜장면이나 짜뽕이나?'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언제나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인생을 잘 드러내 주는 말입니다. 선택이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 의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의 날마다의 작은 선택이 모여 나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에 의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에 의해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선택된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선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고 축복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것은 그들만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도 그들 중에서 양(의인)과 염소(악인)를 구별하셔서 그에 따른 축복과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이 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정도면 착한 것이고, 나 정도면 믿음 좋은 것이고, 나 정도면 의로운 것이고,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지옥은 남의 일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착각도 이런 착각이 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판단하여 결정하시는 사안이지 내 판단에 따른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천국과 영생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성취되는 축복입니다. 나와 하나님

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 준 것을 하나님이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연히 축복해 주셔야 한다는 신앙적 착각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 주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만큼 했다는 영적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아온 인생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다는 착각, 하나님이 내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착각, 그러기에 나는 복 받을 만하다는 착각을 넘어, 머리에 금 면류관 쓰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찬란한 미래에 대한 착각까지.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섬겨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그분이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양이라는 것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나온 내 삶의 모습과 현재의 내 언행을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눈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양으로 선택하실 만한 사람이 맞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양입니다.

말씀 속으로

-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17절)
- 하나님의 눈을 통해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축복 받을 만한 의인입니까, 아니면 심판 받아야 할 악인입니까? 나의 주관이 아닌 하나님의 눈이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 봅시다.

삶 속으로

- 내 모든 언행과 가치관의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까, 혹은 내 자신의 생각과 세상적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나는 과연 양으로 선택될 수 있을까요?

암송 구절 | 에스겔 34:17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자녀와 나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나는 선한 양 같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악한 염소 같은 존재일까요?

2

둘째 주 소그룹 모임 | 본문 에스겔 43:1-12

너희는 거룩하라



새9장(통53장)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새286장(통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새289장(통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여는 질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와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버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이스라엘과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기대하셨겠습니까?

본문 이해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의 특권 의식은 강했지만, 그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선민이라는 지위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영광을 체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선민이라는 그들의 지위가 축복과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민의 지위에 맞는 언행과 삶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선민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선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에 의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재건되고 그 가운데 당신이 임하실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재건된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중에 임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위대한 회복의 약속이었으며(7절),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킬 때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12절) 회복된 성전에 다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였습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하고 선택의 폭이 넓지만, 죽은 후에는 두 가지 길만이 존재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 자신이 결정하지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느냐는 우리가 세상에서 선택한 삶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되게 만드는 삶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기독교가 개독교로 불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나로 인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불신하게 된다면, 바로 내가 하

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과 언행을 통해 드러내는 자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선민이라는 지위가 구원과 축복을 보장하지 않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영생과 천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마음과 언행의 거룩함이 구원과 축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 거룩의 정도는 어느 선에 위치해 있을까요? 내 입술의 말과 언어는 세상과 깨끗하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내 행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깨끗하게 분리되어 내 행동만 보고도 내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삶의 모습은 세상의 상식과 기준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구별되어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내 언행과 삶의 모습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회복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 다시 세워진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7절)
-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원리는 무엇이어야 했습니까? (12절)

삶 속으로

- 내가 지금 행하는 언행과 삶의 방식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높아지겠습니까, 아니면 더럽혀지고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내 언행과 삶의 방식을 볼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까, 아니면 비웃고 조롱하겠습니까?
-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입술의 말과 언어는 세상과 깨끗하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내 행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깨끗하게 분리되어 내 행동만 보고도 내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암송 구절 | 에스겔 43:12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녀와 나눔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나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을까요?

3

셋째 주 소그룹 모임 | 본문 에스겔 47:1-12

은혜 갑절의 법칙



새482장(통49장) 참 즐거운 노래를
새290장(통4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새302장(통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여는 질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 골짜기와 황무지를 기름진 땅으로 변화시키는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칠 만한 곳입니까?

본문 이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된 성전을 중심으로 성취될 이스라엘의 축복을 생명수 환상을 통해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어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서 죽어가는 황무지를 기름진 땅으로 변화시키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황무지가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 깊이가 처음에는 발목에 올랐고(3절), 다음에는 무릎에 올랐으며(4절), 그 후에는 허리에 올랐다가(4절), 결국 사람이 능히 건너질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5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갑절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 실천할 때,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환상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온 우주를 풍성하게 소생시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죄인들의 죄악을 담당하셨고, 친히 자신을 '생수의 강'으로 언급하셨기에, 이 '생명수의 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세어 볼 때마다 갑절로 늘어나 있는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갑절의 법칙'의 수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내 몸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십시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십시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넘치듯 밀려들어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몸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삶을 가장 거룩한 예물로 바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내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를 내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여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나의 삶을 통해 그대로 행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는 성경 말씀과 귀로 듣는 설교 말씀을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예배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감절의 법칙'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 생명수 물의 깊이를 측량할 때마다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3-5절)
-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며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도 기업이 할당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22-23절)

삶 속으로

- 우리의 하루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로 바쳐질 수 있는 예배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 나의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러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있는지 솔직히 반성해 봅시다.

암송 구절 | 에스겔 47:3-5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녀와 나눔

날마다 내가 찬양한 가사의 내용대로, 내가 기도한 내용처럼, 내가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4

넷째 주 소그룹 모임 | 본문 **아모스 7:1-9**

영적 수준



새452장(통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새516장(통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새454장(통508장) 주와 같이 되기를

여는 질문

삶의 수준은 높았으나 선민으로서의 영적 수준은 함량 미달이었던 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도 심판받아 앗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받을 자격을 측량하실 때, 나는 과연 그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본문 이해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죽음, 병드는 것, 가난, 실패, 무엇인가를 상실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지식과 생활 수준이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남들만큼 못 배우고, 남들만큼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좋은 차 타지 못하며, 남들만큼 좋은 직업 가지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속적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영적 수준의 차이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영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벌, 소득, 지식, 생활 수준과 같은 삶의 수준 차이가 사람의 구원과 영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의 수준 차이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더 높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 빈곤 국가인 방글라데시가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1위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달러 수 아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부채만 있을 때에는 선풍기만 있어도 행복했지만, 이제는 에어컨이 없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합니다. 전셋집에 살 때에는 내 집 가지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아파트 평수에 따라 행복이 결정됩니다. 예전에 하버드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들이 2만 5천 달러 받을 때 자신은 5만 달러 받는 경우와, 남들이 20만 달러 받을 때 자신은 10만 달러 받는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대다수의 학생이 남들 2만 5천 달러 받을 때 자신은 5만 달러 받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생활 수준이 높더라도 비교 가치의 세상에 사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수준이 행복을 결정하지 않으며 구원의 기준은 더욱욱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영적 수준의 차이가 심판과 구원, 그리고 영생과 형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영적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수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전쟁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치열함의 수준을 살펴봅시다. 사람과의 싸움, 즉 배우자와의 싸움, 부모 자식과의 싸움, 형제와의 싸움, 친구 및 이웃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 즉 돈과의 싸움, 일과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 하나

같이 세속적인 싸움으로만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과의 영적 투쟁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세상에서 잘 먹고 잘살고 출세하려는 세속적 투쟁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영적 문제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세속적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신앙과 믿음의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태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지옥은 없거나, 있더라도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옥 가는 것은 남의 일로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남의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내게 보장된 것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영적 수준에 도달해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시하던 이방인에 의한 멸망, 그것은 이방인보다 수준이 낮았던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내 영적 수준은 어떻습니까?

말씀 속으로

- 하나님께서 측량 도구인 다림줄을 들고 이스라엘 곁에 서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7-9절)
- 선민 이스라엘이 왜 이방 국가인 앗수르에 의해 멸망해야만 했습니까?

삶 속으로

-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며,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운동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내 영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나는 당연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내 곁에 서서 나를 측량하신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암송 구절 | 아모스 7:7-8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녀와 나눔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 그리고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